

대출난 장기화에 스팸 메시지 81% 급증 '피싱 주의보'

은행권, 대출 사기 문자 주의보 발령
정부지원·특례보증 등 문구 삽입
저금리 앞세워 소비자 현혹시켜
"메시지·전화 제한엔 의심해 봐야"

대출난이 장기화하면서 금융권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 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들어선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은행권에선 지난해부터 급증한 대출 사기 문자와 관련해 대대적인 주의보를 발령했다. 저금리를 앞세워 '정부지원', '특례보증'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삽입해 신뢰도를 높인 뒤 자금이거나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늘면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올해 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무려 81% 급증했다. 전체 불법스팸 탐지량은 지난해 하반기 1717만건에서 올해 상반기 1966만건으로 15%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1금융권 대출이 가로막힌 중·저신용자, 자영업자, 고령층, 취약계층을 겨냥한 저축은행 신용대

출, 장·단기카드대출 피싱이 확산하고 있다.

수법은 날이 갈수록 기상천외하게 변모 중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점수가 낮은 중·저신용자에게 신용점수를 올려준다고 하거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려준다고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대출을 해주겠다고 대표통장으로 송금하게 한 뒤 잠적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기존 금융사 공식 앱을 삭제하게 한 뒤 불법 가상 주소를 보내 피싱앱 재설치를 종용하거나, 특정 인터넷 페이지로 이동하게 한 뒤 신분증,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렇게 탈취한 개인정보는 대표통장 개설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카드 대출 역시 마찬가지다. 시중 대출금리 보다 3% 이상 낮은 금리를 앞세운 카드론, 현금서비스 대출을 알선하며 앱 설치, ARS 전화 연결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기도 한다.

기존엔 발신인의 전화번호가 피싱을 판가름하는 지표가 됐다. 그러나 최근엔 발신번호까지 조작, 금융사 공식번호로 피싱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도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 대비 지나

치게 낮은 금리에 혜택까지 제공하면서 즉시 승인되는 대출은 없다"며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이런 제안이 올 경우 일단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사칭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해당 금융사에 문의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금감원, 경찰청, 불법스팸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금감원에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신고 후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대표통장, 대표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에 가입 후 가입사실현황 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를 통해 도용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부부처는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 시행을 발표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를 3년 이하 징역, 최대 3000만원 과태료로 상향, 처벌 수위를 높인 단장침이다.

/권소원 기자 think@metroseoul.co.kr



항소심 '무죄 판결' 조용병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조 회장은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뉴스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유진PE·두나무 등 5곳 낙찰

유진PE서 사외이사 추천권 확보
낙찰가 평균 1만3000원 초·중반
공적자금 8977억 회수, 회수율 96.6%

우리금융지주 지분매각 최종 낙찰자로 5개사가 선정됐다.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받는 낙찰자는 유진프라이빗에쿼티(유진PE)로 우리금융은 이번 지분

매각으로 20년 만에 완전 민영화를 달성하게 됐다.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낙찰자 결정(안)' 의결을 거쳐 낙찰자 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4%를 낙찰받아 사외이사 추천권

을 확보한 곳은 유진PE 1곳이다. 이어 KTB자산운용(2.3%), 알라인파트너스 컨소시엄(1%), 두나무(1%),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1%)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가격은 평균 1만3000원 초·중반으로 정부가 지난 4월 블록세일로 판주당가격(1만335원)과 원금회수주가(1만

2056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매각으로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자금 8977억원이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매각 완료 시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12조8000억원 중 12조3000억원이 회수되는 셈으로 회수율은 96.6%에 이른다.

공자위는 향후 잔여지분(5.8%)을 1만193원 이상으로만 매각하면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매각으로 우리금융지주는 20여년 만에 완전 민영화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 예보가 아닌 민간 주주가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면서 정부 소유 금융지주사라는 요인이 사라져 주주 중심 경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이번 낙찰자 중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한 낙찰자는 없다. 현행법상 누구나 4%까지는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승인 없이 보유할 수 있지만 선정된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낙찰 예정자 순서대로 매각 물량을 재배정할 수 있다. 차순위 낙찰예정자 명단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예보는 오는 12월 9일까지 대금 수령 및 주식 양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매각이 예정대로 종결될 경우 낙찰자가 추천한 사외이사는 1월에 개최될 예정인 임시주총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실상 완전 민영화에 성공해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정부 소유 금융지주회사라는 요인이 사라진다"며 "예보가 보유한 잔여지분은 추가 이익을 획득해 회수율을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흥삼제품
+3만여개 인기상품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

대한흥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

수도권 코로나19 위험도 '매우높음'

위드코로나 3주차... 방역강화 절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3주차, 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가 가장 높은 수준인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높음' 상황이어서 방역 조치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11월 3주차(14~20일)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매주 코로나19 위험도를 수도권의 병상 가동률, 확진자 증가세,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고려해 5단계로 평가한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3주차 전국은 높음, 수도

권은 매우높음, 비수도권은 중간으로 평가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주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주간 평균 62.6%이며, 수도권은 77%로 악화됐다. 수도권의 경우 69.5%에서 77%로, 비수도권은 34.9%에서 40.1%로 높아졌다.

수도권에서 의료 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이 55.2%에서 70.1%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75.8%에서 76.5%로 증가했다. 비수도권 의료 대응 역량 대비 발생비율은 24.3%에서 29.5%로, 병상 가동률도 44.5%에서 48.8%로 높아지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